환경교육
The Environmental Education
2001. 14권 1호 pp.56~65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현황

- 담당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를 통하여 -

허정림 ·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A Comparative Study on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Status between Civil Organiza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Huh, Jung-rim · Choi, Kyunghee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compare the current status of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between civil and public organizations. This study utilized a survey methodology. The survey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and it has 4 subscales. The subjects consisted of 28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civil organizations and 31 persons in public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provided frequencies and percents for all demographic variables and item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firstly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upport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that prioritizes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for civil and public organizations. Secondly, both civil and public organizations should make continuing efforts for better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nd come up with practical ways to improve ability and quality of the staffs in the civil and public organizations by providing systematic reeducation programs and practical guidelines that would be applied to their daily lives.

Key words :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civil, public organization, status

* 2001. 6. 9 접수

I. 서 론

사회환경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제외한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단체, 언론사 등에 의한 환경보존을 위한 모든 교육을 포함한다. 즉, 학교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기관 이외의 사회기관에서 시행되는 환경교육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사회환경교육을 환경관련 공무원 및 환경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환경백서, 1998).

학교 환경교육이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이라면 사회환경교육은 현재를 위한 기성세대들에 대한 환경교육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환경교육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환경보전법 제정과 1980년 환경청 발족으로 환경교육이 본격화되었고 1980년도 국립환경연구소의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1986년부터 대대적인 환경교육 추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김시헌, 1990).

이 후 사회환경교육은 1986년 '공해추방운동'의 전신인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전의찬, 1992), 교육기관에 따라 전문환경단체, 일반사회단체, 종교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교환경교육원과 같이 환경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과 환경운동연합,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그리고 녹색연합과 같이 환경운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들은 전문환경단체로서 환경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친환경적인 종업원을 양성하고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기업 내 활동의 하나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민방위 교육, 시민강좌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의 근본 목적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친환경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친환경적인 삶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교육을 통해서 형성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사회환경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과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최석진, 1997).

환경문제가 인간행동의 결과에 의한 것임을 볼 때,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문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이고 올바른 도덕성과 가치관 그리고 친환경적인 태도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환경교육은 평생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교육 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즉 연령, 자격, 공간, 기간 등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환경문제가 대두된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시민의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낮은 문제는 재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환경교육은 필수적이다.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크게 두 종류, 즉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이들 기관과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환경교육 담당자들은 사회 교육 전문가의 일반적인 역할인 교육 기획, 교육과정 편성, 교육활동 지도(남정걸과 권이종, 1983; Apps, 1979)외에 환경교육 중장기 계획이나 정책 수립,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교육 대상 결정, 환경 교육 평가와 지원 등 환경교육 혹은 환경 정책에 관련된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담당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식 정도는 그 나라 사회환경교육의 체제와 지향점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이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 소속된 환경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속된 단체와 기관의 환경교육 실태, 담당자들의 환

경교육에 대한 인식과 환경관련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사회환경교육과 담당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사회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지역 공공기관인 일산시청, 광명시청, 서울 강북구청, 도봉구청, 종로구청의 환경분야 담당자 28명과 시민단체인 불교환경교육원, 환경마크협회,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여성환경연대 등의 환경교육 담당자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성비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령층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담당자는 20대와 30대가 각각 42.8%로 주류를 이루는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30대가 58.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50대와 60대는 없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 인	구 분	시민단체 빈도(%)	공공기관 빈도(%)
성 별	남	13(46.4)	18(58.1)
	여	15(53.6)	13(41.9)
연 령	20대	12(42.8)	6(19.3)
	30대	12(42.8)	18(58.1)
	40대	4(14.2)	7(22.6)
전 공	환경관련학과	6(21.4)	3(9.7)
	이 공 계	3(10.7)	15(48.4)
	어 문 계	14(50.0)	4(12.9)
	기 타	5(17.9)	8(29.0)
근무 경력	1년 미만	10(35.7)	3(9.7)
	1년~5년	11(39.3)	7(22.6)
	5년~10년	5(17.9)	13(41.9)
	10년 이상	2(7.1)	8(25.8)

2. 조사 도구, 조사 기간 및 자료 처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사회환경교육에 관련된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고, 장인영(1999)과 박소현(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참고로 연구자들이 개발하였다. 설문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교육 전공자, 민간단체 환경교육 간사와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선택형과 서술형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크게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정책과 지향점, 사회환경교육의 실태, 담당자의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담당자의 환경지식과 태도의 네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설문 조사는 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설문지 70부 중에서 59부가 회수되어 84.2%의 회수율을 보였다.

자료처리는 선택형인 경우 빈도와 백분율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주관식은 중복된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묶어 대표적인 의견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의 제한점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인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근무처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정되었고 인원수가 제한적이며,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의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경력과 학력 등의 배경이 다양함으로 인해 결과를 비교하고 일반화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중장기 계획과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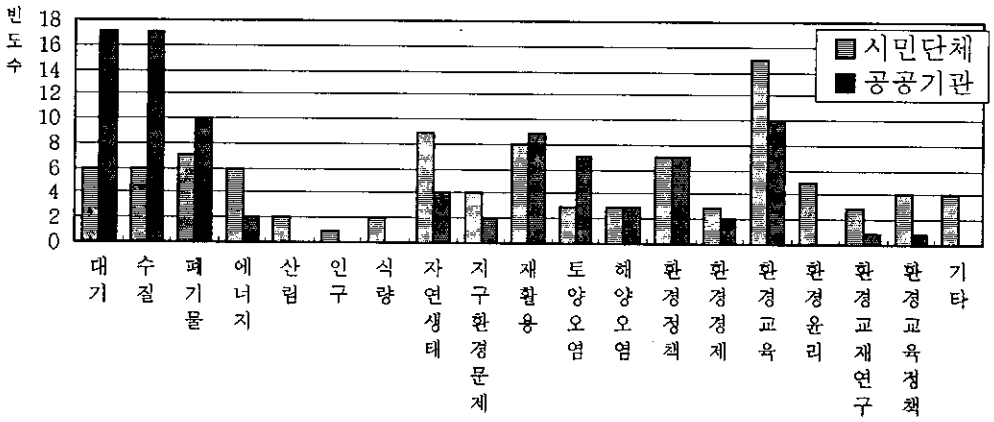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중장기 계획(정책)과 지향점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관련 활동 영역, 환경교육 정책의 유무, 환경교육의 지향하는 목표를 비교·분석하였다.

가. 시민단체와 공공단체의 환경관련 활동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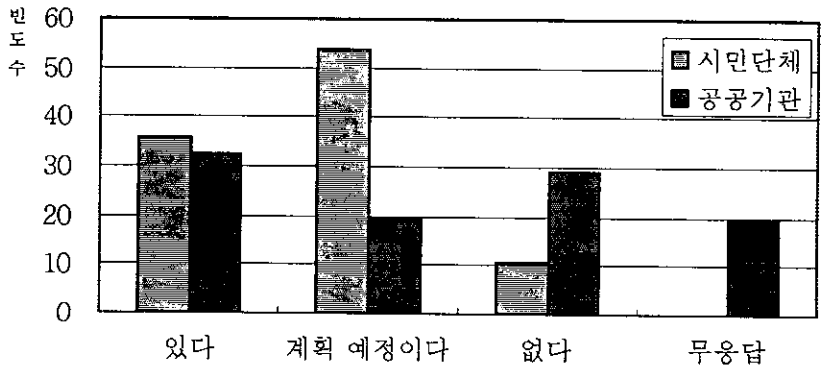
시민단체는 환경관련 활동 영역 중 환경교육 부문이 53.9%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생태가 32.1%로 2위, 재활용이 28.5%로 3위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부문은 인구(3.5%)와 식량(7.1%) 영역이었다. 공공기관은 수질과 대기 부문이 각각 54.8%로 가장 높았고 폐기물(32.2%), 재활용(29.0%) 부분의 순서이었다. 산림, 인구, 식량, 환경윤리 부분의 활동은 전무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시민단체는 환경교육과 생태, 재활용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대기, 수질, 폐기물처럼 오염문제 접근에 우선하고 있었다.

나. 사회환경교육 중장기 계획의 유무

현재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민단체는 35.7%가 공공단체는 32.2%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시민



〈그림 1〉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활동 영역 비교도



〈그림 2〉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정책

단체에서는 53.5%가 공공기관에서는 32.2%가 현재 환경교육 정책이 계획중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공공기관보다 시민단체가 사회환경교육의 정책 계획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11%와 공공기관은 무응답을 포함하여 48%가 앞으로도 사회환경교육 정책 수립의 계획이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장차 체계적인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다. 환경교육의 지향 목표

환경교육의 목표를 6개 항목으로 분류한 후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지향하는 환경교육의 목표를 알아보았다(표 2). 시민단체는 환경운동가 양성을 가장 중요한 환경교육의 목표로 보았고, 환경윤리(가치) 교육, 환경문제 이해와 해결을 그 다음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공공기관은 환경윤리(가치)교육을 가장 중요한 환경 목표를 삼았으며, 그 다음의 중요한 목표로 환경문제 이해와 해결, 환경지식 탐구를 들었다. 흥미 있는 사실은 환경운동가 양성과 환경 전문 강사 양성을 시민단체에서는 중요한 목표로 인식한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이와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 시민단체에서는 환경실천과 변화된 삶, 그리고 생활 속의 환경운동 등이 있었으며, 공공기관은 환경오염의 지도 및 단속, 환경보존 홍보, 오염저감대책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견이 많았다.

2.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실태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실태는 환경 교육의 실시 유무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교육방법, 교육대상을 조사함으로써 알아보았다.

가. 환경교육의 실시 유무

환경교육의 실시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시민단체는 82.1%, 공공기관은 67.7%로 시민단체가 높게 나타났다. 즉 시민단체에 비해 공공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이 저조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시민단체는 예산 부족, 담당 부서의 부재, 장소 부족 등을 들었다. 공공기관도 예산 부족이란 답변이 많았으며, 서울시와 환경부 등 상급기관의 전문교육으로 대체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1) 교육목표

시민단체는 친환경적인 인간 양성, 환경적 감수성, 생태적 상상력 증진, 공동체의식 형성, 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등 환경 윤리적인 내용과 자원봉사자 양성, 여성 지도력 강화, 생활지도자 양성 등 체험위주의 교육목표가 많았다. 공공기관은 관내의 생태 이해, 자연환경 이해, 환경보전 의식 고취, 주민 환경의식 제고, 환경

〈표 2〉 환경교육의 지향목표

구 분	시 민 단 체		공 공 기 관	
	빈도(%)	순위	빈도(%)	순위
환경윤리(가치)교육	14(50.0)	2	13(41.9)	1
환경지식 탐구	8(28.5)	4	5(16.1)	3
환경문제 이해와 해결	12(42.8)	3	6(19.3)	2
환경운동가(실천가) 양성	17(60.7)	1	4(12.9)	5
환경전문강사 양성	7(25.0)	6	0(0.0)	7
환경정책 등 대안분석	8(28.5)	4	4(12.9)	5
기 타	3(10.7)	7	5(16.6)	3

오염 배출업소의 관리교육 등 생태와 관한 내용과 더불어 삶과 직접 연관되는 목표가 실행 중이었다.

2) 참가인원

시민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은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실시되는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은 학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였다.

3) 교육기간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모두 연중 비정기적으로 일 단위나 주 단위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학생 대상의 방학 프로그램이 있었다.

4) 교육방법

시민단체에서는 강의, 토론, 체험위주의 기행, 탐사, 현장답사, 시청각 매체 활용, 교육자료 사용 등의 교육방법과 심포지움, 워크샵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공공기관은 견학, 탐사, 교육자료에 의한 강의, 현장 교육, 출장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두 기관 모두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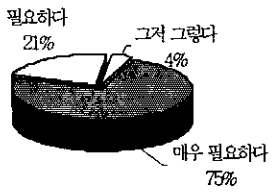
실시하고 있는 현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조사한 결과, 시민단체에서는 주부(64.2%)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중고생, 초등학생 순서였다. 공공기관은 초등학생(48.3%)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고생, 주부의 순서였다. 시민단체는 주부(일반인)를, 공공기관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담당자의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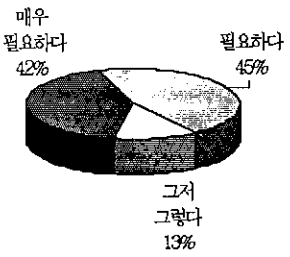
사회환경교육의 필요성,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 환경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가. 사회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회환경교육의 필요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시민단체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매우 필요하다'(75%)와 '필요하다'(21%)에 응답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담당자들도 '매우 필요하다'(42%)와 '필요하다'(45%)에 응답함으로써 두 기관 모두 사회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이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담당자 모두 '전혀 필요치 않다'와 '거의 필요치 않다'의 항목에는 응답자가 없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그림3, 4>.



〈그림 3〉 시민단체 담당자의 인지도



〈그림 4〉 공공기관 담당자의 인지도

나. 환경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시민단체에는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담당자가 78.5%인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48.3%로써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담당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 분야 담당자에게 환경교육의 경험은 필수요건이라고 볼 때 이런 결과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환경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 시민단체 담당자는 '기회가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이 66.6%이었고 '시간이 없어서'가 33.3%이었다. 공공기관은 '기회가 없어서'가 86.6%이었으며 '적당한 교

육기관이 없어서'가 13.3%이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환경교육 담당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담당자를 위한 환경 교육 현황과 평가

환경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기관, 기간, 만족도, 그리고 불만족한 사유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단체의 담당자들이 재교육을 받은 기관은 주로 시민단체와 학교로, 공공기관은 정부기관과 학교기관으로 치우쳐있어 상호간의 교육 정보 교환이나 일관성 등 상호 유대의 부재를 드러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교육 기간은 3주 이내의 단기간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담당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고 다양한 사회환경교육 실행이 요구된다.

라. 환경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

시민단체의 담당자들은 현행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내용면에서는 현장학습 위주가 아닌 환경지식 위주의 교육을, 관리 및 운영면에서는 지속성의 부재, 관계자의 환경인식 부족을, 시설면에서는 체험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다양한 교구·교재와 교육 매체의 부족, 아울러 환경교육 전문가의 부재, 교육비 부족, 홍보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기관 내 환경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시민들의 호응 부족, 교육과 실천의 괴리, 정책에서 환경부문의 소외되는 점,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인원 동원 등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는 점 등 정책과 운영 측면의 지적이 많았다. 시민단체의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정부 기관 내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과 관점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적이 많았다.

마.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역할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시민단체 담당자는 모두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20명(64.5%)의 담당자들이 무응답을 하였다. 시민단체에서는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역할로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 시민의 환경 실천을 돕는 안내자, 홍보자, 교육자,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하는 전수자, 정부가 올바른 환경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견제자, 정책 대안자를 들었다.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국민에 대한 홍보자, 환경보전 실천의 전파자, 교육자, 환경 실천가로 생각했으나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역할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표 4〉 환경교육 관련 경험

구 분		시 민 단 체	공 공 기 관
		백분율	백분율
교육기관	정부기관	4.6	92.3
	민간단체	72.7	0
	학 교	22.7	6.4
교육기간	1주이내	47.6	46.2
	1주~3주	4.8	38.4
	3주이상	47.6	15.4
만족도	상	23.8	30.8
	중	76.2	69.2
	하	0	0
무응답		6.6	6.6
불만족사유		자료 부족, 개론적 강의, 자연체험 부족, 대상 불명	심도가 없다 폐기물 내용 집중, 실제현장 교육 부재

4.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환경지식과 태도

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환경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관심도를 측정한 결과, '전혀 관심 없다'와 '관심 없다'에 대한 답변은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모두 전혀 없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대부분 '관심있다'(35.7%)와 '매우 관심있다(64.3%)'에 반응을 하였으며, 공공단체에서는 '보통이다'(12.9%), '관심있다'(45.2%)와 '매우 관심이 있다'(41.9%)에 골고루 응답하였다.

나. 환경에 관련 전문 지식에 대한 인식

담당자 자신의 환경에 관한 전문 지식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혀 없다'에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모두 응답자가 없었으며 두 기관 모두 '그저 그렇다' '있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표 5).

〈표 5〉 환경관련 전문 지식에 대한 인식

응 답		전혀없다	없다	그저 그렇다	있는 편이다	많이 있다
백분율	시민단체	0	3.8%	38.5%	42.3%	15.4%
	공공기관	0	0	41.9%	48.4%	9.7%

다. 친환경적 사고의 실천가

사회교육 담당자 스스로 본인이 친환경적 사고의 실천가인가 하는 문항에서는 시민단체 담당자는 '매우 그렇다'(6.4%), '그렇지 못하다'(7.1%), '어느 정도 그렇다'(71.4%)의 순서로 응답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담당자도 '매우 그렇다' 2명(6.4%), '그렇지 못하다'(22.5%), '어느 정도 그렇다'(70.9%)로 응답하였고, '전혀 그렇지 못하다'에는 두 기관 모두 응답자가 없었다.

본인 스스로 생활 속의 친환경적 사고의 실천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시민단체 담당자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므로', '우선을 환경에 두고 행동하므로'와 '직업이므로 직업성격상 실천하기 때문에', '환경운동이 직업이므로' 등과 같이 직업의식과 더불어 답변하거나 물건 구매시 환경부담율이 적은 제품으로 구입하거나, 포크나 물병 갖고 다니기, 쓰레기 줍기 등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든 사람도 많았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1명 있었다.

공공기관 담당자는 무응답이 54.8%로 높았는데, 응답자의 내용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므로', '가급적 비환경적인 행동은 지양하므로', '환경교육 담당자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와 같이 직업의식에 준한 사고와 더불어 분리 수거, 알뜰 소비, 에너지 절약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든 담당자들도 절반 가량 있었다.

라.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

사회환경교육 담당자로서 실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담당자 중 '전혀 그렇지 못하다'에 응답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71.4%)와 '매우 그렇다'(21.4%)에 응답이 높았던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25.8%)와 '어느 정도 그렇다'(58.0%)에 응답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으로만 볼 때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에 비해 시민단체의 담당자들이 비교적 친환경적인 생활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6〉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

응 답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백분율	시민단체	0%	7.2%	71.4%	21.4%
	공공기관	0%	25.8%	58.0%	16.2%

I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환경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회환경교육 현황을 파악·비교하였다. 설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중장기 정책과 지향점에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은 주로 오염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에 비해 환경교육 중장기 계획이 있거나 계획중인 비율이 높았다. 환경교육의 지향목표에 있어서 시민단체는 환경운동 실천가 양성과 환경 윤리 교육을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였으나 공공단체는 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중요한 목표로 두었다.

둘째,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실태에 관련하여, 먼저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에 비해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횟수가 높았으며, 환경 윤리적인 내용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았고 참가 인원이 소규모인 반면, 공공기관은 환경 문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교육 기간은 두 기관모두 서로 비슷했으며 교육방법도 다양했다. 교육 대상이 시민단체는 주로 주부인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은 학생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셋째, 담당자의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두 기관의 환경부서 담당자 모두 사회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에 비하여 시민단체 담당자들이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으며, 환경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기회와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환경교육의 문제점 지적에 있어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담당자 모두 내용, 관리와 운영, 시설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역할에 있어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담당자 모두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환경 지식과 태도에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담당자 모두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보통 이상의 환경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였다. 또한 스스로 친환경적 사고의 실천가라고 인식하였다. 더불어 담당자 대부분이 친환경적 생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시민단체 담당자가 공공기관의 담당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친환경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및 결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거시적, 체계적 접근 위에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사회환경교육이 우선 될 수 있는 환경교육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서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환경윤리·지식·실천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환경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노력과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환경교육 담당자들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환경관련 지식과 환경에 대한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적 생활 실천가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담당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환경교육의 실태, 실시 방법, 사회환경교육 중장기 계획 등에 관련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김시헌(1990). **사회환경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 교육과학사.

남정걸, 권이종(1995). **사회교육행정론**, 서울: 교육과학사.

박소현(1998). **일반인의 환경문제 의식과 사회환경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인영(1999).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연구: 민간환경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의찬(1992). 환경문제에 관한 주민 참여와 사회환경교육: 현황과 개선 대책. **환경교육,** 3, 50-53.

정진승(1993). 한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환경교육의 과제와 지향 방향. **환경교육,** 83-87.

최석진(1989). 우리 나라의 환경교육 현황과 과제, **교육개발,** 통권 제432호.

환경부(1996). 환경백서, 서울: 환경부.

환경부(1998). 환경백서, 서울: 환경부.

Apps, J. W. (1979). **Problems in Continuing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